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의 세계에 관여하는 일이다. 한편의 책은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세계에 동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돌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보고 체험하는 만큼만 세계가 존재한다는 급진적 구성주의자들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그 세계에 관여하고 다시 창조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세계 또한 다시 구성되고 더 넓은 영역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도서평론가 이권우가 펴낸 《어느 게으름뱅이의 책 읽기》는 한 사람이 책이라는 세계에 어떻게 관여하고 어떻게 자신의 세계를 다시 창조하는지 보여준다.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또한 메타적이기도 하다. 이 책을 읽는 것은 책읽기에 대한 책읽기며, 한 사람의 책읽기의 방법과 형식에 대한 읽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책읽기는 매우 성실해서 지식과 세계에 대한 충실한 안내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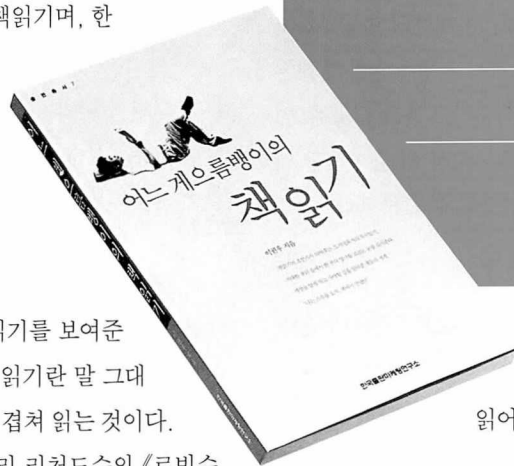
#### 새로운 책읽기, 다양한 독후감 형식 보여줘

지은이는 이 책에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책읽기를 보여준다. 겹쳐 읽기와 깊이 읽기가 그것이다. 겹쳐 읽기란 말 그대로 하나의 주제를 염두에 두고 여러 권의 책을 겹쳐 읽는 것이다. 그는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와 험프리 리처드슨의 《로빈슨 크루소의 사랑》, 미셸 투르니에의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을 함께 읽기도 하고, 신경숙의 《오래 전 집을 떠날 때》와 김병익의 《페루에는 페루 사람들이 산다》, 그레이엄 헨콕의 《신의 지문》을 겹쳐 읽기도 한다. 이런 읽기는 하나의 주제와 관련해서 더 폭넓은 세계를 체험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책들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해준다.

깊이 읽기는 한 권의 책을 깊이 분석하며 읽는 책읽기다. 그는 그 책과 관련된 평문들을 기초해 다양하게 해석하고 분석하기를 시도한다. 그러나 그는 한편의 책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고 못박지는 않는다. 886쪽에 이르는 《김남천 전집》 같은 책은 발표순서대로 읽기 보다는 김남천이 임 화와 벌인 논쟁을 중심으로 읽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한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또한 독후감의 형식도 선보이고 있다. 〈호밀밭에서 부르는 아름다운 아이들의 노래〉에서 그는 최시한의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의 주인공 선재와 J. 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 홀든을 서로 대화하게 한다. 두 주인공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환경에 속해 있지만 비슷한 체험과 느낌을 공유하면서 위선으로 가득 찬 어른들의 세계를 반성하게 한다. 소크라테스의 책을 읽다가 그는 아예 ‘소크라테스 선생님 전상서’라는 글로 소크라테스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허클 베리핀의 모험》을 읽다가 ‘입이 간질간질할’ 것을 참지 못하고 주인공 허크에게 말을 붙여보기도 한다. 그가 보여주는 이런 다

이 책은 한 도서평론가의 성실하고 꼼꼼한 책읽기를 보여준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겹쳐 읽기, 깊이 읽기 같은 새로운 독서 방법을 제안하고, 두 책의 주인공들끼리 대화를 하게 하는가 하면 철학자에게 편지를 쓰는 등 다양한 형식의 독후감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지은이의 글은 성실하게 책을 소개하고 있어 지식과 세계에 대한 충실한 안내자 역할도 하고 있다.



## 《어느 게으름뱅이의 책읽기》

개인적 삶과 시대를 지탱하는 책읽기

이권우 지음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A5신/2022년/8000원

양한 형식의 독후감은 책읽기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줄 뿐 아니라, 이 책을 읽어가는 데도 쓸쓸한 재미를 준다.

#### 책읽기에 개인적 삶의 흔적 엿보여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한 개인의 삶이 책 안으로 흘러들어와 어떻게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어떻게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는지도 살필 수 있다. 대학시절 그가 철학과 여학생을 짝사랑할 때 만났던 레즐리 스티븐슨의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일곱가지 이론》은 “그녀도 이 책을 읽고 있으리라는 생각에” 그의 가슴을 쿵, 쿵, 뛰게 했다. “이 세상과의 불화가 극치에 다다랐고, 내가 과연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만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던 시절에 그는 장 폴 사르트르를 만나 “20년 동안이나 지켜온 낡은 세계관의 처녀막”을 찢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책읽기에 드러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을 꾸려온 것은 어쩌면 그가 종종무진 읽어낸 책들이 아니었나 싶다.

지은이는 책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게으름뱅이다. 그러나 게으름이란 책을 읽는 데 꼭 필요한 덕목이다. 책만큼 속도를 강요하지 않는 매체가 또 있을까. 그의 책읽기는 성실하고 꼼꼼한 게으름을 통해 천박한 속도에 저항하면서 세계와 충돌하고 세계를 재창조해낸다. 책이 읽히지 않는 사회에서 도서평론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때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의식적 질문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그의 책읽기는 그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 시대를 구원할 소중한 발걸음이라는 믿음이 이 책의 곳곳에서 얼굴을 내민다. —김장근 기자